

社說

보여주기 아닌 근본해결위해 노력할때 —서울 취업정보실 개편을 바라보며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고학력 취업난과 대학과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해줄 때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이것은 한낱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을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도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1일 서울경제기 기획관리실은 우리학과 학생생활연구소와 학생취업복지과를 통합, 개편하여 '취업정보실'을 신설했다.

그동안 취업자료수집,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취업복지과가 취업정보실과 장학복지과로 개편되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취업에 관한 개인적 상담과 진로 상담업무로 필요에 의해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취업준비는 졸업생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발달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지금의 실정을 고려해볼 때 이번 '취업정보실' 신설은 늦은 감이 없다. 앞으로 '취업정보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정보제공을 통해 예비졸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체계적인 취업지도와 진로진정성에 폭넓은 도움을 준다는 데 그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중요한 신념적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실' 신설과정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취업에 대한 전문상담기구의 신설 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기구개편에 불과하

공대식당 직영을 둘러싼 공방

지난 수원대학교 교재주 합 의사항 중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5대 요건의 하나였던 공대식당 및 매점의 2학기 직영 실시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학교측과 학생들의 실무자들은 이 사항에 대해 1학기말 조선포, 한양대(국대)에 운영권임과 동시에 수석직 1명의 학생직원이 실시되고 있는 대학들을 공명전사하였으나 방학중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방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교재주 합의사항인 공대식당 직영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고

인 학원자주 추진위원회(이하 학자주)는 현재 공대식당 직영의 필요성, 주변 환경개선 등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달라는 학자의 참가한 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사정해 달라는 취지를 학교, 학생, 공직직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이 문제에 관

학교와 학생의 활발한 논의 후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철저한 준비성과 타협의의 신의 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공대식당 운영에 대한 대학측의 의견이 주된 사항인 만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직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양측 공동계획 부재, 2학기 실시 불투명

하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제하고 있는 공대식당 및 매점의 직영을 위해 입차 신청서 작성 요구사항 시정을 계속 조인하고 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들 실무부서

▲추석전까지 기존입차와 계약체제를 완료하고 ▲추석연휴기간동안 주당 및 식당의 부수를 늘린다 ▲올 10월 초부터 자체계약에 따라 운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매점의 경우

해 ▲입차와의 계약체제가 학생들의 요구대로 가능하지 않음 ▲실사결과 대상학교에서 학생이 참가한 직영이 효과적이지 못한 장점을 들어 직영의 불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대직영을 실시할 경우라도

(박경희 기자)

경제지상주의에 실종된 교육공약

사설

—신정권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3.7%와 4.4%의 차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가시적인 개혁 정책에서 우리라는 의미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 교육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해직교사 분직법안 등은 많은 이들에게 교육 개혁의 개혁이 이전 정권의 정책을 답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9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3당 모두들은 각각 교육예산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박근혜가 95년, 국민당이 96년, 민주당이 98년 등으로 비록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육예산의 GNP 5%수준 확보라는 내용은 이미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경제기획원 '신정권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공약은 부도수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각계의 교육 전문가들은 한심한 경제지상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라는 보고서는 흥미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국가 발전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예산 가운데 교육예산에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응답자의 64.7%가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경제개발비(15.5%), 사회개발비(13.7%), 방위비(7.2%), 사법 및 경찰비(0.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문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5·6공 비리관련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11월간 열렸던 윤석열, 평화의 당, 12·12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위원회와 진실위원회는 국정조사 지난 10일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청하가 다 아는 사실들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중언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와 언론의 전횡을 다시금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청하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와 언론의 전횡을 다시금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청하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와 언론의 전횡을 다시금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로스 이런 국정감사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언이 청하가 현안문제로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비리도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뒷받침하며 파행되게 하였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현 문민정권이 전, 전(전)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지지기반에서 청하를 전격이 라는 데 있다. 바로 이점에서 3대의후사자의 국감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한미대도 권력자 지원의 배면에 실체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 완전한 개혁의 성공은 권력자와 지원의 배면이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재산공개와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의 속도와 개혁의 방향은 권력자와 지원의 배면이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재산공개와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의 속도와 개혁의 방향은 권력자와 지원의 배면이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교육비 GNP 3.7-4.4% 엇갈린 분석, 첫단계부터 배극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관점 수정 절실

금까지 합산하여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육예산'이란 중앙정부의 1년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교육공공비를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경제기획원의 재배(?)는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인지를 전 문 '교육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신정권 5개년 계획과 교육예산

GNP 비율 5%는 아무런 조건 없이도 1, 2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료등 학생생활비금만 조증의 올린다면 경제기획원의 논리상 5% 수준은 무난하다. 더 심한 비약을 해서 교육에 투자된다고 해도 교육예산의 개념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한종하)의 한우정 박사과 전국교원, 학부, 공무, 공무, 시·도의회 등 1천8백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교육부'의 확대 논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삼성엔 「세계1급품질」을 위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엔 국제화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품질 최우선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15만 삼성인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감각에 혁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엔 국제화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품질 최우선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15만 삼성인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감각에 혁신하고 있습니다.

「품질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삼성인의 혁신방안」

- 조기출하근거 실시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탈피 7시 출근, 4시 퇴근으로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초저녁 경영.
- 완전 현장근무제도
-현장을 아는 경영, 고객과 호응하는 경영의 실현을 위해 상설의 전직원 444명 현장 근무.
- 라인소통제
-삼성인의 새로운 상징의 줄임표는 각으로 불량 발견시 선 상의라인장부 불명요인 제.
- 독점회
-현장의 새로운 상징의 줄임표는 각으로 불량 발견시 선 상의라인장부 불명요인 제.
- 제조직 지원
-현장의 새로운 상징의 줄임표는 각으로 불량 발견시 선 상의라인장부 불명요인 제.

